

현단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주제사서제 활용 방안

이 용 재*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주제사서 논의의 현단계
 - III. 주제사서의 양성
 - 1. 대학도서관 조직의 측면
 - 2. 문헌정보학 교육의 측면
 - IV. 나오며
- 참고문헌
Abstract

I. 들어가며

흔히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라고 말한다. 일례로, 대학총장이 도서관 행사를 위해 도서관에 와서 하는 치사(致辭)에서 이 표현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표현은 '대학도서관이 대학을 움직이는 핵심기관'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영국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자문하기 위해 1919년에 설립된 '대학보조금위원회(University Grants Committee)'의 경우를 잠깐 보자. 이 위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2 圖書館學論集(第 29輯)

회는 영국 전역의 대학과 대학도서관을 실태조사하고 1921년에 보고서를 생산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학도서관의 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대학의 성격과 효율은 그것의 중심기관, 즉 도서관을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따라 측정될 수 있다. 우리는 대학도서관 운영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이야말로 대학의 설비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제대로 된 도서관은 모든 교육과 학습 활동에 기초를 이룰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의 핵심조건이 된다. 도서관이 없으면 인간지식의 양이 늘어날 수가 없다.¹⁾

그러나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재에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라는 위상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대학의 경쟁력도 열악하고,²⁾ 대학의 학문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대학도서관도 저발전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가 세계 무대에서 가지는 낙후한 위상을 보여주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14개국 50개 대학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서울대학교가 16위에 랭크되었다는 보도가 각 일간지에 소개되어 대학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 우연한 기회에 베이징(北京)의 칭화(淸華)대학을 방문한 일이 있다. 면역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교수의 방에서 그의 업적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던 중 대학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대학이건 교수연구실에 들어서면 거의 예외없이 서가에 들어찬 수많은 전문서적들을 보게 된다. 그런데 중국의 그 교수 방에는 자그마한 서가에 자신이 발표한 논문들의 별책본과 너댓권의 전문서적이 꽂혀있을 뿐이었다. 그는 돈도 없고 공부도 안 하는 교수인가. 그렇지 않다. 그가 설명하는 업적의 대부분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 학술잡지에 발표된 논문들이었다. 대학의 도서관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거의 갖추어져

-
- 1) University Grants Committee, *Report of the University Grants Committee*. London, HMSO, 1921; James Thompson, *An introduction to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London, Clive Bingley, 1987. p.2에서 재인용.
 - 2) 이에 대해서는 교육계와 언론에서 자주 거론해왔기에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의 대표적인 대학인 서울대학교에 대한 최근 신문기사 하나만 소개한다. “매년 공교육 예산(22조 8,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10여조원의 사교육비를 쏟아붓고도 서울대의 대학경쟁력이 아시아 16위권에 머무는 나라. 세계로 눈을 돌리면 800위권에도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육현실.” 이상기, “정부, 서울법대등 폐지추진 배경”, *한겨레신문*(1998. 7. 13).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전문학술잡지는 아쉬운대로 큰 불편없이 찾아볼 수 있으나 단행본의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교수들 각자가 없는 돈에 무리를 해서라도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어지지 않은 대학이 아시아에서 16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과분하게 평가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³⁾

위의 글은 대학의 기본(Basic)이 바로 대학도서관이며, 또한 대학도서관의 기본은 다름아닌 체계적으로 수집된 장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것은 소장(ownership)과 접근(access)의 문제가 논란이 되는 현재⁴⁾에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여전히 잊지말아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대해 연구자들의 원성(怨聲)이 자자한 것은 한 두해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 대학도서관에 대한 연구자들의 불만은 대체로 잠재되어 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대학의 도서관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으며 거의 포기하고 있으면서도 대개 이러한 불만을 드러내놓고 공론화하지는 않는다. 직원의 불친절에 대해 투서를 하거나 사석에서 표출하는 경우는 때로 있다. 못 연구자의 잠재적 불만을 대변이라도 하듯 이러저런 지면을 통하여 한국 대학도서관 장서의 파탄상태를 고발하는 연구자들도 있기는 하다.⁵⁾

이용자로부터 외면받는 대학도서관과 대학사회에서 그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서는 그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으나, 평생고용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3) 박찬웅, "16위도 과분한 서울대", **한국일보**(1997. 5. 26).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에 잘 정리되어 있다. 김정근 편저, **디지털도서관: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서울, 민음사, 1997; 양재한, "미래도서관에서의 소장(ownership)과 접근(access)의 문제", **도서관학논집**, 25집(1996. 겨울), pp. 19-50; 윤희윤, "도서관의 미래상에 대한 담론 및 쟁점의 분석과 형상화", **도서관학논집**, 27집(1997. 겨울), pp. 61-95; 권은경, "도서관의 본질과 미래 도서관상(像)", **도서관학논집**, 27집(1997. 겨울), pp. 423-456.

5) 이러한 종류의 글들도 무수히 많을 것이나, 여기서는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자료 몇가지만 소개한다. 김종업, "서울대 도서관, 읽을 책이 없다", **말**, 96호(1994. 6), pp. 212-215; 김찬호, "대학, 지성, 시민적 공공성: 교육과 사회에 대한 몇가지 단상", **현대사상: 1998 지식인리포트**(1998. 6), pp. 63-80. 또한 문헌정보학자 김정근은 그의 책,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서울, 한울, 1995)에서 이러한 단편적 담론의 차원을 넘어 한국 대학도서관 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였다.

IMF이후의 시대에는 사서직도 경쟁무대로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대학도서관 사서진이 봉착한 문제는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급변하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따라잡아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제지식(Subject Knowledge)을 갖추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최상기는 한국 대학도서관이 학습조직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전략을 주제지식과 정보기술의 두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주제지식교육: 미래 지식정보사회에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 수준이 고도화되므로 사서의 역할도 단순하게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 제공하는 업무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지식으로 가공하여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주제분야에 대한 지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사서의 주제전문지식이 요구될 것이다. ... 따라서 사서들 각자가 소양과 관심이 있는 특정주제분야를 선택해서 주제지식을 학습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도서관 조직구조의 개편과 대학의 육성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보기술교육: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정보기술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은 인문사회계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를 전공한 사서들은 컴퓨터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소양과 적성이 비교적 부족하고, 대학도서관에서도 사서를 위한 정보기술 교육에 등한시해 왔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도서관과 사서들은 정보기술교육에 투자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⁶⁾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사서가 정보기술과 주제지식, 이 양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조직환경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사회적 인식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대학도서관은 기본을 가꾸어야 하는 개척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⁷⁾ 한국 대학도서관은 장서의 빈약, 사서의 비주체성, 이용자의 몰이해 등이 악순환하는 저발전 구조에 처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에는 한편으로는 정보기술이 몰려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근대적 권위주의가 엄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뜻있는 일선 사서진이 현

6) 최상기, "대학도서관의 경쟁력 강화 방안", **국립대학도서관보**, 16집(1998), pp. 9-10.

7) 이에 대해서는 김정근, 앞의 책(1995), pp. 97-99에 잘 나타나 있다.

장을 가꾸어나가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

이 글은 위에서 말한 두 과제 중에서 '주제지식'의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정보기술'이라는 과제는 이미 많은 연구자와 사서가 대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도서관론'으로 대변되는 이 방면의 연구는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의 현단계를 초월하는 다소 첨단적인 양상을 띠는 듯하다.

주제지식의 문제 또한 이 땅의 문헌정보학 연구자와 현장 사서가 오랜동안 관심을 가져온 사안이다. 이 방면에서 흔히 논의되고 연구되어온 '사서의 주제배경', '주제전문사서' 등의 표현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논의와 개념은 도서관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가끔적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의 입장에 서서 이러한 '주제지식'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하는 대학도서관 현장과 사서진을 찾아 다녔으며, 도서관현장에서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을 시행하고 사서진과의 '심층면담(ethnographic interview)'을 시도하였다.⁸⁾

다음 장에서는 이 글에 관련된 선형연구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주제전문사서 논의'를 정리하고, 그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주제사서(Subject Librarian)'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대학도서관 조직의 측면과 문헌정보학 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8) '참여관찰'이란 말 그대로 연구자가 연구대상 속으로 들어가 관찰하는 것이다. 참여의 정도는 적극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입장에 서서 그것의 맥락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심층면담'이란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 볼 수 있는 서베이방식에서처럼 사전에 개념을 설정·조합하여 설문지를 만드는 것과는 달리, 연구자가 면담의 주제만을 정하고 면담에 들어가는 것으로 질문의 숫자나 질문의 표현들을 미리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연구자가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다.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에 대한 대표적 저술로 James P. Spradley의 *Participant Observation* (Orlando, Florida: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80)과 *The Ethnographic Interview* (Orlando, Florida: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9)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을 통하여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방법론의 다양화를 시도한 논문으로 김정근·이용재,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와 문화기술법",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서울, 한울, 1998), pp. 23-71이 있다.

II. 주제사서 논의의 현단계

우선 여기에서 본 연구자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 '주제사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겠으나, 그러한 작업은 논리의 전개상 이 장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와 관련한 논의들을 살펴본 뒤에 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의 최초 논문은 안영주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참고봉사의 문제점"⁹⁾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글 중에서 '주제전문사서'를 시사하는 부분을 옮겨본다.

“장차 주제별 열람실제도를 채택하게 된다면 그 분야의 학적 배경을 갖고 도서관학을 전공한 전문직 사서(Subject Specialist)에 의하여 참고봉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 전문직 사서를 양성하는 한 방안으로서 고려될 만한 것은 그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주제분야의 대학원 출신자로 학업이 우수하고 도서관봉사에 적성을 가진 자를 도서관조교로 채용하고 일정한 기간 도서관 실무경험을 갖도록 한 후 도서관학 대학원과정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장차 도서관교수로서 교수진과 동등한 승진과 지위를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¹⁰⁾

위의 글을 살펴보면, 주제사서의 자격과 양성방안을 기본적으로 외국(미국)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땅의 도서관학이 겨우 발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도서관학 외의 학문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인력을 대학도서관에 유입하고 이후 도서관학 석·박사과정을 거치게 하여 도서관교수(library faculty)로 양성하자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 자체는 당시로서는(아니 현재까지도) 매우 선진적인 주장이기는 하나, 국내 현실에 착종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만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의 '주제전문사서 담론'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9) 안영주,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참고봉사의 문제점", *도서관*, 109호(1966. 가을), pp. 5-8.

10) 위의 글, p. 6.

국내외의 주제전문사서 관련 연구를 총정리한 사람은 한상완이다. 그의 저서,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론』¹¹⁾은 그의 박사학위논문, “한국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주제전문사서의 기능 연구”¹²⁾를 개제한 것으로 이 분야의 제반 선행연구를 포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주제전문사서의 현황과 기능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최저자격을 다음과 같이 전제하고 있다.

첫째, 주제분야의 학사로서 도서관학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이
 둘째, 도서관학을 전공한 학사로서 주제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이
 셋째, 도서관학을 전공한 학사로서 대학원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특정주제분야를 부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소지한 이¹³⁾

여기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주제전문사서의 최저 자격으로 석사학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서구와 같은 도서관선진국의 경우에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주제전문사서가 대개 이중 석사학위(double master)를 가졌거나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특정 주제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것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뜻있는 문헌정보학 연구자들과 도서관 사서들이 이러한 선진적인 사례를 지난 수십년간 계속 소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도서관 현장에 주제전문사서가 채용되거나 양성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현장 사서진의 주제전문사서 논의도 이상과 같은 학계의 주제전문사서 담론에 따르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 한 예로 《국립대학도서관보》에 실린 현장 사서들의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제도에 관한 제언”¹⁴⁾이라는 논문을 살펴본다.

이 논문은 현대 대학도서관의 중추기능을 참고봉사 활동으로 보고 참고봉사의

11) 한상완,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론**. 서울, 구미무역, 1986.

12) 한상완, “한국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주제전문사서의 기능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86. 2).

13) 한상완, 앞의 책, p. 100.

14) 전순자·임영계,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제도에 관한 제언”, **국립대학도서관보**, 13집 (1995), pp. 201-207.

질을 본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제전문사서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이어 우리나라, 독일, 미국, 영국의 주제전문사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고차원으로 상정하고 있다.

상당한 대학수준의 주제전공 배경, 석사나 박사학위,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외국어실력, 도서관장에 대한 지식, 또는 절판도서구매에 대한 지식 등은 필요한 자격요건이 된다. 주제전문사서는 젊은 연구자나 신입교수에게 관련 자료에 대한 안내나 그 자료를 찾는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한다.¹⁵⁾

이처럼 안영주에게서 시작된 주제전문사서 논의는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현장 양쪽에서 현재까지도 여전히 고답적인 양상을 띠면서 우리 현장에 대한 적실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위 현장사서들의 논문은 끝으로 두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우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주제전문사서에 대해 규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대학도서관은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에 있어서 도서관학 교육의 전반적인 구조변화에서 그 방안을 찾는 것 보다 교수요원에서 충원하여 주제사서로 훈련시키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¹⁶⁾ 이와 같은 제언은 바로 1966년에 안영주가 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사서의 재교육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대학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에 대한 분야별(학부전공 및 부전공), 또는 원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을 위해 행정적인 뒷받침과 사서들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서들이 주제전문사서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 주제사서 양성을 위해 대학과 대학도서관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사서들 각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현장 사서 모두가 주제사서가 되는 것은 불필요할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것은 뒤에서 좀더 논의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단계를 고려할 때, 현재까지의 다소 고차원적인 '주

15) 위의 글, p. 204.

16) 위의 글, p. 206.

17) 위의 글, p. 206.

제전문사서'에 관한 논의를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여기에서 기존의 '주제전문사서'라는 개념과 이와 대비되는 '주제사서'라는 개념에 대하여 용어정의를 하고자 한다.

· 주제전문사서 (Subject Specialist)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용어사전』¹⁸⁾에 따르면, 주제전문사서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주제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관련주제영역의 자료를 선정,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아울러 정보서비스와 서지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 직원. 주제분야는 아주 세분되거나 특정한 분야일 수도 있으며, 교수, 학교, 학과조직에 포함되는 관련분야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것일 수도 있다. 도서관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그의 주제분야에 속한 도서관자료의 이용을 최대한으로 확대시킬 책임이 있는 주제전문사서는 다양한 의무를 갖게 된다. 주제전문사서는 정상적으로 최소한 한 주제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유하여야 하며, 기술계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에 대한 석사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대학원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제분야에 대한 석사학위를 가진 사서로서, 의사전달능력을 갖고 있고, 대학의 학과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교수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이다. 또한 그는 자료선정과 장서개발의 책임을 지고, 정보서비스, 서지통정, 도서관자료의 이용교육을 담당하며, 최신정보의 선택적배포서비스를 발전시키고 문제상담해결자(ombudsman)로서의 기능을 갖는다.¹⁹⁾

이와 같은 정의는 국내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라기 보다는 도서관현장이 성숙되어 있는 서구의 발전단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사서 (Subject Librarian)

이 논문에서 주제사서라 함은 한국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특정 학문분야의 주

18) 사공 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19) 위의 책, p. 340.

제지식을 가지고 장서개발과 참고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한다. 이 개념은 아직 우리 현장에서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논의되어온 '주제전문사서' 개념과는 다른 '현장적실적' '현단계적' 개념이다. 한국 대학도서관 현실에서 주제사서 역할을 한다고 간주되는 사서는 대체로 포괄적인 주제분야(예컨대, 인문·사회·자연과학) 자료를 담당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제사서는 담당 학문분야의 '서지전문가'이지, 그 학문분야의 전문연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야기한 맥닐(A. L. McNeal)의 다음과 같은 분석은 정청할 만하다. 즉 그는 주제전문사서가 일반 사서보다 반드시 우수나가 하는 데에는 의문이 남는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 주제배정의 일반상식을 풍부히 갖춘 소위 주제일반사서(subject 'generalist')이지 한 주제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고도의 주제전문사서가 아니다."²⁰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생각하는 주제사서는 담당분야의 이용자 및 서지 연구, 출판동향의 파악, 참고봉사, 자료선정 및 장서평가 활동을 통해 담당 주제분야의 '서지적' 지식을 축적해나가는 인력을 말한다. 따라서 주제사서가 특정 학문분야의 학사 이상의 주제배정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단계를 고려하여 '주제사서'의 자격을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해 본다.

- 첫째,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대학도서관 근무경력이 3년이상 되며 주제서비스에 적응이 있는 이
- 둘째, 사서자격증(2급 정사서 이상)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이외의 학문분야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
- 셋째, 문헌정보학 학사로서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타 주제분야 이용자연구 또는 장서·서지연구를 수행하여 석사학위를
소지한 이

20) Archie L. McNeal, "Divisional Organization in the University Library," *Library Lecture Number Twelve*.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1961. p. 45; 한상완, 앞의 책, pp. 94-95에서 재인용.

위 시안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의 가용 인력을 고려한 점이다. 우리 대학도서관 현장에 종전의 주제전문사서 논의에서와 같은 고급 인력이 들어오는 예는 흔하지 않다고 본다. 가령, 문헌정보학 학사이고 타 분야 석사인 사람과 타 분야 학사이고 문헌정보학 석사인 사람을 우리 현장이 활용하는 것은 아직도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의 기존 인력을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를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자격은 대학도서관 주제서비스의 주력 인력(central force)을 문헌정보학 학사 이상의 사서로 상정한 것이다. 이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생 이상의 연구자에게 봉사하여야 하는 주제사서의 학력이 최소한 학사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대학도서관 근무경력을 3년 이상으로 상정한 것은 현단계에서 주로 참고봉사에 해당하는 주제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가급적 기술봉사(technical services) 부서를 포함한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수서부서에서 자료유통구조를 파악하고 정리부서에서 자료조직을 통한 주제지식의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는 적어도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3년이란 기간을 제시한 것은 한상완의 연구²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참고테스크를 맡는 사서의 도서관 총 근무경력이 대개 2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참고봉사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출판 및 서지지식을 겸비한 사서가 맡아야 하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자가 이 연구를 위해 방문한 서강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참고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도서관 근무경력이 5년정도 되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고 한다. 물론 그 근무경력 중에는 정리 부서에서 자료조직을 해 본 경험이 존중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5년 이상을 상정할 수도 있으나 경력이 오래된 사서일수록 대민 봉사인 참고봉사를 기피하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3년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21) 위의 책, p. 105.

덧붙여 주제서비스에 적성이 있는 사서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 요소를 포괄하는 표현이다. 예컨대, 이용자를 직접 상대하여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이에 보람을 느끼거나, 도서관에서 주제별자료실이 구성되어 이를 열성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도서관 업무와 관련하여 논문을 생산한 사서를 지칭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자격은 주제지식을 갖추고서 도서관에 근무하거나 근무를 희망하는 인력을 고려하여 상정한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면 현단계에서 다양한 수학 경험을 쌓고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인력이나 도서관근무를 하면서 주경야독하는 사서를 주제사서로 양성할 수 있다. 예컨대,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를 나와 준사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방송통신대학을 다녀 다른 학문분야의 학사가 되고 이어 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육을 전공한 경우, 그는 2급 정사사이면서 다른 학문분야의 학사인 것이다.²²⁾ 또 다른 예는 다른 학문분야의 학사이면서 문헌정보학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력의 경우이다.

세 번째 자격은 문헌정보학 학부를 나와 문헌정보학 석사과정에서 수학한 경우로 위의 두 경우에는 들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이 안은 한상완의 주제전문사서 최저자격 중 세 번째의 경우와 일견 같아 보인다. 그러나 타 분야의 부전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헌정보학 내에서 타 분야를 상대로 이용자연구를 한다든지 특정 도서관에서의 타 학문분야 장서연구를 하거나 특정 학문분야 서지연구를 한 경우를 지칭하는 점에서 다르다. 이것은 주제사서 인력이 타 학문분야의 내용에 관한 지식을 가진 경우보다 타분야에 대한 '서지적' 지식을 가진 경우가 더욱 바람직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격기준은 기존의 주제전문사서 논의에서 제시된 것보다는 현실적 이지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의 현단계에서 볼 때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시안이 한편으로 현장 사서진의 분발과 자기계발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주제지식을 가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합적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제시한다.

22) 이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39호) 중 사서직원의 자격요건(별표3)을 참고한 것이다.

Ⅲ. 주제사서의 양성

1. 대학도서관 조직의 측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에 주제사서가 등장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우선 사서 개인이 주제봉사를 해보고자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통제위주의 경직된 도서관 조직의 생리를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은 기능별 조직으로 운영된다. 즉, 수사·정리·열람 식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하는 순차적 업무형태를 띤다.²³⁾ 이러한 조직구조에서는 사서가 '주제'라는 통로로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또한 이러한 기능적 조직에서는 업무의 능률향상(예컨대, 업무처리의 신속화)을 위해 정보기술(IT)의 활용은 주된 관심사항이 될 수 있지만, 사서의 주제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소홀히 하기 쉽다.

본 연구자가 이 연구를 위해 국내 주요 사제도서관을 답사하며 사서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대체로 교육·행정·경영 대학원과 같이 야간에 운영되는 특수대학원을 통하여 지식욕을 충족하고 있었다. 간혹 일반대학원 문헌정

23) 대학도서관의 조직구조는 기능별, 주제별, 이용자별, 자료형태별, 지역별 조직 이상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별 조직에는 기본적으로 수사, 정리, 대출, 참고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에 의한 조직구성은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이에 따른 과(課)나 계(係)를 두고 있다. 주제별 조직은 주제별 부서화에 의하여 조직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도서관내 주제자료실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과 같이 큰 범주의 학문구분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 조직은 주제분야별로 특별한 봉사를 제공하고 주제별 도서관(또는 자료실)의 장서와 이용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하는 동시에 장서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제공한다. 이용자별 조직은 이용대상별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형태이다. 대학도서관을 학부생을 주봉사대상으로 하는 학습도서관과 대학원생 이상의 연구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연구도서관으로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예이다. 이러한 형태로서 국내 도서관의 효시로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들 수 있다. 자료형태별 조직은 일반도서 외에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고서귀중서적, 학위논문, 지도 등 자료의 형태에 따라 업무조직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기능별 조직과 함께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형태이다. 지역별 조직은 분관의 운영과 같이 이용자에게 도서관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조직형태이다. 양수미, "자동화에 따른 대학도서관 조직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29권 2호(1998. 6), pp. 39-40 참조.

보학과 석·박사과정을 통하여 계속교육을 시도하는 사서들도 있었으나 이들은 상당한 현실적 곤경에 처해 있었다. 주간에 진행되는 수업을 개인적으로 따라가기가 힘들 뿐 아니라, 대학도서관 현장에서는 이들의 자기교육을 탐탁치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근무기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 일반대학원에서 수학활동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였다. 학업을 이유 삼아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기관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대학원 진학을 소속 도서관에 알리지 않고 휴가일수를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학업을 수행하거나, 도서관 내에서 상관이나 동료로부터 어느 정도 암묵적인 동의를 얻고서 야간근무를 자청하는 방법 등으로 계속교육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현장을 굳건하게 지키며 후배를 이끄는 실력있는 전문 사서가 드문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조직을 두고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사서의 업무개발과 계속교육은 현대 대학도서관 조직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뜻있는 사서 개인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마저도 역압을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²⁴⁾

이러한 상황은 한국 대학도서관의 현단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뜻있는 사서 개개인의 노력에만 맡겨두기에는 우리 현장의 현단계가 너무나 열악하다. 특히 단순한 기능별 업무가 아닌 주제별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소속기관의 조직논리에 따라야 하는 사서 개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장의 조직구조를 주제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주어야 이러한 사서

24) 이것은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우려해온 사안이다. 우리나라 사서직의 주제성 문제를 학문적 화두로 삼고 평생을 써뒀던 김정근은 “오늘날 이 나라의 대학도서관 안에는 높은 직업윤리성과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도서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주체세력(central forces)이 부재한 것이 아닐까. 관장은 있으나 관리자가 없으며 과장·주임은 있으나 중간관리자가 없는 것은 아닐까. 사서들의 근무는 있으나 일이 없으며 직장인은 있으나 일꾼이 없는 것은 아닐까”(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pp. 38-39.)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과 그 인력의 약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최근에 들어서 이재환은 “전문인”으로서의 사서는 만들어진다. 신출내기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이 전문적인 사서로서 홀로 서려면 이들을 이끌어줄 능력있는 선배들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문제는 우리의 도서관계에는 능력있는 선배 사서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다.”(이재환, “전환기 ‘한국’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도서관학논집**, 28집(1998. 여름), p. 338.)라고 하면서 우리 현장을 책임지고 후배사서들을 이끌어가는 베테랑사서의 부재현상을 비판하였다.

개개인의 노력이 피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장이나 과장 등 도서관의 리더들이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주제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개편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1) 조직구조의 주제화

여기서 말하는 조직구조의 주제화란 단위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학문분야별로 자료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로 말한다. 학문분야별로 자료실을 꾸미고 적성수의 사서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현단계에서 주제별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본 전략이 된다고 본다. 학문의 구분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큰 범주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관 체제가 발달하여 있는 서구 도서관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단일의 중앙집중식 건물안에 대구분된 주제별 자료실을 운영하는 것이 현단계에 적합한 조직운영이라고 본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 사례는 계명대학교 도서관(동산캠퍼스)이다. 이 도서관은 단일 건물 안에 어문학자료실, 인문과학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 경상분야자료실, 과학기술자료실, 예술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경우는 이러한 체제를 실현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주제도서관 연구팀이 최근에 생산한 문서²⁵⁾에 따르면, 어문학도서관, 인문사회과학도서관, 예체능도서관, 과학기술도서관식의 주제구분을 하고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존 도서관 건물내에 층별로 주제별자료실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또한 다수의 도서관 건물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이라면, 건물별로 주제별 도서관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의 경우, 기존의 단일건물 도서관 옆에 계속 이어서 건물들을 지어 3개의 건물이 하나의 도서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주제구분은 제1관(종교·철학·총류관), 제2관(이공·인문관), 제3관(사회과학관) 방식을 취하고 있다.

25) 부산대학교 주제도서관 연구팀, “부산대학교 주제도서관 구축을 위한 보고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1998. 2. 23.

한편 단일건물의 한 층만을 이러한 주제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한 예로 전주대학교 도서관을 들 수 있다. 이 도서관은 건물의 한 층에 단행본자료를 대상으로 주제별 운영을 하고 있다. 즉, 단일공간 안에 주제별(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어문학 등)로 서가를 배치하고 각 주제분야 서가를 담당하는 사서들이 있어서 자료조직과 참고봉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도서관을 살펴본 결과, 도서관의 업무구조를 주제별로 조직하는 것이 주제서비스 도입 및 정착의 기본포석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자료실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의 직무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사례도서관의 주제자료실 담당 사서들은 우선 참고봉사에 열의를 내고 있었다. 해당 주제분야의 이용자와 직접 만나 자료이용을 도와주고 질문에 대답하는 일에 담당 사서들은 신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사례도서관에서 주제자료실 참고데스크를 맡고 있는 사서들의 이야기이다.

계명대학교 도서관 C사서(면담 1998. 1. 8): 주제자료실을 운영하니까 무엇보다도 이용자가 편리하게 느끼는 것 같다. 우리 도서관의 주제자료실에서는 자료를 10년을 기준으로 개가자료와 보존자료로 구분한다. 실무경험상 이용이 많겠다면 오래된 책이라도 개가서가에 내놓는다. 또한 신간이라도 시리즈, 특히 원서 시리즈는 이용자가 한정되기 때문에 보존서가에 둔다. 개가서가에 놓을 책들은 신착도서코너에 2주 정도 비치한 뒤 개가서가로 들어간다. 따라서 이용자는 자신의 전공분야 자료실로 찾아가면 항상 최신 도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참고봉사이다. 그래서 이모저모로 노력한다. 개인적으로 참고봉사용 카드도 많이 만들어 둔다. 예를 들어 ‘한국유학’, ‘카톨릭 신부 사제’ 등의 주제에 따라 어떤 자료가 있다는 것을 표기하는 식이다. 어쨌든 이용자를 만나 질문에 답하는 일이 즐겁다. 나의 발전이 있는 것 같고, 많이 배우는 것 같고. 나는 “모른다”, “없다” 소리를 안한다. “해볼게요. 찾아 볼게요”라고 대답한다.

서강대학교 도서관 J사서(면담 1998. 1. 14): 우리 도서관이 주제관을 운영한 것은 1997년 가을 학기부터이다. 우리 도서관의 모토는 서비스제일주의이다. 타 도서관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주제관의 참고데스크를 맡고 있는 참고사서의 일은 참고봉사, 이용자 교육과 안내, 자료선정, 주제별 서지 작성과 강의 등이다. 우리 도서관에서 참고실에 근무하려면 정리실을 거쳐야 한다. 예외도 있으나 참고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5년 정도 정리실

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분류를 해본 경험이 중요하다. 주제 용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참고사서를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상에서 보듯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단계에 있어서 주제별 자료실과 참고 데스크의 운영은 주제사서 출현을 앞당기는 효과적인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는 참고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한다. 자료를 주제별로 모아놓고 한 명의 사서가 그 자료실을 담당한다고 해서 당장 참고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내부 구조를 주제별로 조직해줌으로써, 사서의 주제별 참고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기틀은 일단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사례도서관들의 경우, 주제서비스에 대해 관장이나 과장과 같은 관리자들의 인식이 있었기에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다. 계명대학교 도서관의 경우는 '열람과는 대출반납과 같은 단순노동을 하는 노는 부서'라는 인상을 불식하고 열람부서 사서의 참고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환경 조성에 오랜동안 진력해온 사서직 과장이 있으며, 서강대학교 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 설립 이후 수십년간 조성된 참고봉사와 이용자교육을 중시하는 업무환경이 있다. 이들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주제별 자료를 특정 자료실에 모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주제서비스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자료실을 가꾸고 이용자에게 봉사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나가는 사서가 있을 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주제서비스는 그 기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선진국의 경우에도 단일 건물(또는 인접한 여러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주제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대학(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도서관이다. 이 대학의 중앙도서관에는 인문사회과학도서관(3·4층), 과학도서관(5·6·7층), 법학도서관(8·9층)과 같은 작은 주제도서관이 있으며, 이 중앙도서관과 연결된 인접 건물에는 생물의학도서관(2·3·4층)이 있다. 이들 주제도서관은 담당 주제분야의 단행본,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정부간행물, 회귀자료, 비도서자료 등 제반 자료를

모아놓고 관련 주제분야 이용자들에게 조준된(aimed) 서비스를 행한다. 이들 주제도서관은 학교의 모든 이용자를 위하여 장서를 구성하고 서비스를 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주제도서관의 주제 관련학과의 학생, 연구진에게 봉사하고자 계획되어진 것이다.²⁶⁾

분관이 발달하여 있는 대규모 대학도서관인 경우에도 중앙도서관에는 대개 특화된 주제자료실들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브리티쉬컬럼비아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도서관의 경우, 연구도서관(Main Library)에 예술도서관(Fine Arts Library), 인문사회과학 참고자료실(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ference Division), 자연과학 참고자료실(Science Reference Division) 등 대구분된 학문분야를 담당하는 주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보다 특화된 주제도서관 역할을 하는 다수의 분관들이 존재한다. 분관들을 좀더 살펴보면, 교육학 도서관(Education Library), 법학도서관(Law Library), 수학교서관(Mathematics Library), 음악도서관(Music Library), 우드워드 생물의학도서관(Woodward Biomedical Library), 아시아도서관(Asian Library), 맥밀란도서관(Macmillan Library, 임학·농학도서관), 크레인도서관(Crane Library, 점자도서관) 등이다.²⁷⁾

따라서 이 경우는 주제도서관 시스템이 더욱 발달한 경우로, 연구도서관의 주제자료실은 주로 색인, 초록 등과 같은 서지도구를 갖추고 참고봉사를 한다.²⁸⁾

일본 리쓰메이칸대학(立命館大學) 도서관의 경우에도 중앙도서관 2층에 사회과학자료열람실이 있고 3층에 인문·자연과학자료열람실이 있다. 이 도서관 이외에 이 대학 내에는 여러 개의 분관이 있으며 이 분관들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분관들은 대체로 각 학부(우리나라 대학의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들이며 주제별 연구도서관의 기능을 하고 있다.²⁹⁾

26) 이수상·김수진, "우리는 뉴사우스웨일즈대학 도서관을 이렇게 보았다 : 연수보고", **도서관소식**(부산대학교도서관), 6호(1993. 11), p. 75.

27) 강태원·김수선, "우리는 UBC도서관을 이렇게 보았다 : 브리티쉬컬럼비아(UBC) 도서관 연수보고", **도서관소식**(부산대학교도서관), 4호(1993. 2), pp. 102-106.

28) 위의 글, pp. 103-104.

29) 유익봉·이남경·이수현·김종성, "일본 도서관 연수를 마치고", **도서관소식**(부산대학교도서관), 7호(1994. 12), p. 79.

이들 도서관선진국의 대학도서관을 살펴보면, 이용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엿볼 수 있다. 주제별 자료실 및 주제별 분관의 설치, 주제 도서관별 참고데스크의 운영 등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곁에서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지식관리자로서의 사서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도 이러한 도서관선진국들의 경험과 사례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상에서 보듯, 주제별 자료실의 운영은 중규모 이상의 도서관에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사서진은 주체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며 도서관을 운영하는 단계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사례도서관들의 경우에도, 참고사서들의 열성적이고 지속적인 봉사와 업무개발에도 불구하고 주제별 참고봉사에 대한 인식이 대학내에, 심지어 도서관 내부에서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축적된 사서진의 노하우와 노력이 인사권자(대개 외부에서 온 비전문직 관장이나 행정직 과장)에 의해 쉽사리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면담한 주제자료실 참고사서들은 자신들의 일에 흥미와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고 그 중에는 가능한 한 퇴직할 때까지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는 사서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현단계 한국 대학도서관의 조직구조에서는 한낱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2) 참고서비스의 주제화

도서관서비스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이용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이 그 하나이고, 이용자 보다는 자료를 주로 다루는 일이 나머지 하나이다. 대체로 전자를 이용자서비스(User Service, Public Service)라고 부르고, 후자를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라고 부른다. 서구 도서관선진국의 경우,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서비스 부서와 기술서비스 부서는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가지고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도서관학교(Library School)를 졸업하고 도서관 현

장에 발을 내딛을 때, 참고사서(reference librarian)로 시작하는 사람은 이용자서비스 부서에서 그리고 편목사서(cataloger)로 시작하는 사람은 기술서비스 부서에서 대체로 자신의 직업인생을 마치게 된다.³⁰⁾

한편,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의 현단계 업무체계도 이러한 양대 서비스의 구분을 기본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수서-정리-열람 이라는 기능별 업무 구조는 자료의 입수에서 봉사까지의 일련의 공정에 따른 것으로, 이 중에서 수서와 정리 업무는 기술서비스로 또한 열람 업무는 이용자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업무가 해방이후 반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단순히 자료의 총괄처리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말해, 도서관에 입수되는 자료를 물건 다루듯이 번호를 매겨 서가에 진열하고 이용시키는 차원에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의 서비스가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일까? 우리 현장의 수서 부서에서 과연 자료를 선정하고 학문분야별로 균형있게 개발하는 장서개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현장의 정리 부서에서 자료에 대한 주제어(Key Word)를 부여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 현장의 열람 부서에서 이용자의 갖가지 질문을 처리하는 참고봉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마도 이러한 질문들에 우리는 매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단계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재에도 여전히 사서직과 보조직원과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30) 여기에 한가지 특기하고 싶은 사례가 있다. 본 연구자가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도서관은 이러한 양대 서비스의 체계를 허물어버린 경우이다. 이 도서관은 90년대 이후 이용자서비스와 기술서비스의 경계를 없애버리고 직원 개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어느 부서에든 배치하는 인사관리를 행하고 있다. 이 도서관에는 자원관리과(Resource Management,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서무과에 해당)의 직원개발 및 인사관리 부서(Staff Development & Personnel)에 직원개발담당 사서(Staff Development Librarian)가 있는데, 이 사람의 역할 중의 하나는 도서관의 전 직원으로부터 희망업무를 신청받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정을 하는 일이다. 도서관의 전 직원은 자신이 일하고 싶은 부서를 수시로 직원개발담당 사서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희망은 별다른 무리가 없는 한 거의 전적으로 존중된다. 물론 이용자서비스 부서와 기술서비스 부서의 경계를 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도서관현장에서 보면 참조할 만한 사례가 아닌가 한다. 일선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의사가 평소에 존중될 수 있는 인사관리야말로 도서관을 신바람나는 직장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의 사서진이 이러한 저발전구조의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정보기술'이라는 과제에 대처하는 동시에 '주제지식'이라는 과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현장과 강단의 많은 전문가가 각자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할 듯 하다. 여기서는 현재까지의 논의와 본 연구자의 관찰을 중심으로 본 연구자 나름의 의견을 개진해본다.

잠정적인 결론부터 미리 말한다면,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참고봉사의 본격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참고봉사는 열람과 업무 중에서 잘 하면 좋고 소홀히 해도 그만인 업무가 아닌가 한다. 도서관에서 자료의 구입과 정리, 그리고 대출은 비교적 객관적인 통계로 제시될 수 있지만, 참고봉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물론 개별 도서관에서 참고질문에 답한 횟수를 통계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어림잡은 대충의 수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참고봉사의 질이다. 참고질문은 크게 4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지시형 질문(directional question)으로 이것은 이용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로서 이용자는 참고사서에게 단지 해답을 위한 방향만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즉답형 질문(ready reference question)으로 이것은 이용자나 참고사서가 한두 가지의 참고자료만을 조사함으로써 간단히 해답에 이를 수 있는 질문을 말한다. 셋째는, 조사형 질문(specific search question)으로 이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두가지 이상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강연을 준비한다든가, 학기말 논문을 작성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넷째는, 연구형 질문(research type question)으로 이 질문을 처리하기 위해 참고사서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찾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며, 이를 위해 제한없는 조사를 진행한다.³¹⁾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의 참고데스크

31) 박준식, **정보서비스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8, pp. 98-101.

에서는 주로 지시형 질문과 즉답형 질문을 처리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개별 도서관과 사서에 따라 실정은 달라질 것이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참고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저조하다고 본다.

참고로 본 연구자가 호주에서 접한 참고데스크에 대한 인상을 전달해 본다. 여기에서 드는 사례는 호주 멜버른(Melbourne)의 모나쉬대학(Monash University) 도서관이다. 본 연구자는 그곳에서 1996년 1월중 2주일 동안 도서관 측에서 마련해준 방문프로그램에 맞추어 도서관 관찰을 하였다. 본 연구자는 도서관의 구성구석을 살펴보았으나 특히 인상깊었던 부분이 바로 참고데스크(영문 명은 information desk라고 표기되어 있었음)이다.

중앙도서관의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1층 로비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참고데스크가 이용자를 맞이한다. 이 도서관의 참고데스크는 약 20명의 베테랑 사서들(최소 경력 5년 이상)이 돌아가며 참고업무를 보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데스크가 사서들의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대체적인 경우처럼 현관에서부터 이용자를 맞이하는 종합안내데스크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참고자료실의 데스크에서 대개 젊은 사서(또는 비사서직 직원)가 앉아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도서관에는 많은 주제사서(subject librarian, reference staff)가 있는데 이들이 이 참고데스크의 업무를 돌아가며 본다. 우리로 봐서는 과장 또는 주임급 사서(senior librarian)도 이 데스크에 앉는다. 또한 시간제 직원(part-time staff)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데 물론 이들도 사서자격 중 소지자로 나이들이 상당히 들어 보였다.

이용자들은 이 데스크에 무엇이든 물어본다. 간단한 안내를 요구하는 질문에서부터 특정 주제의 자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요구하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스스럼없이 물어본다. 참고데스크 앞에는 거의 언제나 이용자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가 되기를 참을성있게 기다린다. 그리고 숙련되고 전문적인 사서들이 친절하게 가급적 이용자와 동반하는 자세로 이용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참고사서는 이용자의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는다. 다만 클릭하는 측정기 2개를 가지고 이용자의 질문을 센다. 하나는 간단한 방향안

내를 요구하는 질문(directional question), 또 하나는 상세한 주제서비스를 요구하는 질문(reference question) 용이다. 후자의 경우는 해당분야 주제사서에게로 안내를 한다. 1994년도에 이 참고데스크에 문의된 질문수는 지난해도 질문이 25,502개, 고난도 질문이 37,736개였다. 대개 하루 평균 지난해 질문이 80여개, 고난도 질문이 100여개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주제사서이기도 한 베테랑 참고사서들이 무난하게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도 이 참고데스크에 앉아 참고사서가 봉사하는 모습을 몇 시간 지켜볼 수 있었다. 본 연구자가 방문한 시기는 방학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데스크를 이용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참고사서만 데스크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방학중이기때문) 그는 잠시도 무료히 앉아 있을 여유가 없었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도서관에서 부딪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예컨대, 목록검색, 교내 건물 안내, CD-ROM 검색, 어떤 주제의 도서 찾기 등등) 이 데스크를 찾았고 이 데스크의 사서는 자신 앞에 놓인 참고봉사용 컴퓨터와 자신의 주위에 배열된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문제를 수월히 해결해 주고 있었다.

사실 이 참고데스크 주위를 꼼꼼히 살펴보면 도서관의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하고자하는 도서관 사서진의 노력이 눈에 확연히 보인다. 각 학문주제별(예컨대 영문학, 사학, 사회학, 여성학, 한국학 등), 자료형태별(연속간행물, 정기간행물, CD-ROM자료 등) 안내팜플렛과 안내책자들이 주제사서들의 노력으로 작성되어 누구라도 쉽게 뽑아들고 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낱장으로 된 안내자료는 이용자가 가질 수 있다. 참고데스크 위에는 검색터미널과 각종 도서관안내 팜플렛, 명감을 비롯한 적절한 서지도구가 있고, 참고데스크 앞에는 참고도서 서가가 도열해있으며 앞에는 10대가량의 검색터미널이 놓여있어 이용자들이 열심히 검색을 하고 있었고, 데스크 뒤에는 CD-ROM검색 터미널이 여러 대 있었다. 그야말로 도서관으로 통하는 길의 관문에 이 참고데스크가 놓여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한 특기할 만한 것은, 온라인열람목록(OPAC)의 운영과 함께 카드목록함을 중앙로비에 비치해 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점이다.³²⁾

위에서 말한 대로, 이 참고데스크에는 수십명의 사서들이 매달려 있는데, 참고

사서실의 주제사서들과 아시아학도서관의 주제사서들이 돌아가며 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참고봉사 시간은 하루(또는 이틀에) 2시간 정도이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분야에서 일하다가 이 데스크로 나와 다양한 일반 이용자들을 만나 대화를 하며 이용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한다. 이들에게는 참고데스크로 나오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기본전환의 시간이 된다. 이 데스크의 업무를 통해 이 주제사서들은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고 이러한 생각들을 자신들의 업무에 참고하기도 하고 도서관의 업무개선에 반영하기도 하는 것이다.³³⁾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참고데스크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이 도서관 1층 로비의 한켠에는 'reference staff'이라는 문패를 단 참고사서들의 공간이 있다. 본 연구자가 이 공간을 방문하였을 때, 첫 번째로 만나는 작은 방에는 참고사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사서가 있었고, 그 방의 맞은 편 방에는 한 젊은 여성이 전화안내를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이 도서관의 (중앙) 참고데스크로 걸려오는 전화를 일차적으로 받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참고데스크로 전화를 통한 문의가 직접 쏟아지면 그 데스크의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이 직원이 참고데스크로 가는 전화를 일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직원은 자신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안내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다른 주제사서들에게 전화를 연결하기도 하는 등 전화를 상대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이 직원의 방 옆으로 유리벽으로 칸막이된 주제사서들의 방들이 연이어 있고, 각 방에는 주제사서들이 대개 2명씩 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단계에서 이러한 참고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길

32)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평론가 클리포드 스톨(Clifford Stoll)의 진단을 들어보면 도움이 된다. 그는 도서관에서의 카드목록의 무분별한 폐기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클리포드 스톨, 한경훈 역, **허풍떠는 인터넷**. 서울, 세종서적, 1996. pp. 282-290.

33) 본 연구자의 호주 대학도서관 방문기는 하이텔 '열린도서관(olib)'의 16번방(사서들의 소리터)에 소개되어 있다. 또한 여기서 소개한 부분은 다음의 글에도 인용되어 있다. 이용훈, "정보봉사, 도서관의 새로운 활로", **도서관문화**, 37권 3호(1996. 5-6), pp. 25-26.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주제별 자료실(열람과 소속)을 설치하고 각 실마다 참고데스크를 운영하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중앙 로비에 종합안내를 담당하는 인포메이션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여기에서 집중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조직구조를 유지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방안들이 필요하다. 아래에 시안으로 개략적인 논의를 제시해본다.

각 주제별 자료실에 우선 1명의 사서를 배치한다.³⁴⁾ 배치되는 사서는 가급적 수서·정리 업무를 다년간 거친 경력사서로서 이용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 바람직하다. 이 사서의 주된 업무는 참고봉사이다. 이러한 참고봉사의 기능에 포함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조력, 도서관 및 자료에 대한 이용교육, 학과와 같은 이용자그룹과의 연계, 정보제공, 주제별 서지 및 안내자료의 편찬 등이다.³⁵⁾

그리고 이 사서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직원을 개별 도서관의 여건에 맞게 배정한다. 보조직원의 배치가 어려울 경우,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활용도 고려한다.

위의 업무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업무는 방문하는 이용자에 대한 조력과 도서관 및 자료에 대한 이용교육이 아닌가 한다. 그 동안 정보제공 기능은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많이 강조해온 반면, 참고봉사의 일차적 기능인 방문이용자 지원과 이용자교육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온 느낌이 있다. 이제 주제자료실을 찾아오는 이용자에게 자료를 안내하고 질문에 답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경우 주된 이용자는 대학생이다. 그동안 열람과에서는 대출·반납 업무를 주로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이용자에게 온라인열람목록(OPAC)의 이용지도, 과제물(term paper) 처리에 필요한 자료탐색 지원 등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업무의 활성화를 통해, 각 주제자료실 담당사서는 이용자들의 정보요

34) 물론 개별 대학의 특성, 개설과정, 교수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2명 이상의 사서를 배정할 수도 있다.

35) 한상완, **정보조사제공론**. 서울, 구미무역, 1995. pp. 64-67.

구와 자료이용행태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이용자에 대한 지식은 주제자료실 담당사서의 자료선정 능력을 신장시킬 것이다. 그런데 현대계에서 자료선정을 포함한 장서관리 활동을 주관하고 본격화해야 하는 부서는 수서 부서라고 본다. 각 주제자료실 담당사서는 수서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서담당 사서(들)의 자료선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즉, 자료추천의 취합과 총괄은 수서 사서가 담당하지만, 주제자료실 사서 또한 일정 정도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물론 좀더 나아가 주제자료실의 주제사서에게 자료선정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 즉, 주제사서가 담당 학문분야의 자료추천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수서사서는 구입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제사서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제사서는 이용자로부터 자료추천을 받는 동시에 자신도 일정 부분 자료선정을 수행한다.

한편 이용자교육의 경우 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과 교수진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이용자교육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온 감이 있다. 이제부터는 주제자료실별로 담당 사서가 해당 주제분야 이용자들을 상대로 평소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자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특정 이용자나 이용자 그룹이 이용자교육을 신청할 경우까지도 수용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보제공 서비스에는 간략 정보의 조사제공, 대학생·대학원생 및 교수진의 요청에 의한 문헌조사, 신착자료목록의 작성 및 배포, 신간책자 안내, 목차속보 복사서비스, 최신정보의 선택적 배포서비스(SDI) 등이 포함된다.³⁶⁾ 이러한 서비스를 주제자료실별로 시행할 경우, 이용자의 특성에 보다 조준된(aime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면, 각 주제자료실 담당사서는 자연스럽게 주제별 서지 및 안내자료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대학도서관의 주제사서들은 다양한 주제서지 및 안내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

36) 위의 책, pp. 65-66.

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본 연구자가 방문한 사례도서관들의 참고사서들은 미약한 형태이지만 주제서지 및 안내자료를 생산하고 있거나 장차 그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었다. 예컨대, 서강대학교도서관의 경우 '영어영문학 관계 참고도서', '영어영문학과 논문작성법', '각주 참고문헌 기입예'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관련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아작은 특정 이용자군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주제도서관별로 이러한 자료들이 생산된다면 이는 도서관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끝으로, 이용자그룹과의 연계(liaison) 기능의 강화이다. 이것은 주제담당분야학과 학부 단과대학 전문대학원과의 공적 관계 수립, 해당 이용자그룹의 교과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 체결, 각 이용자그룹 중 최소한 1명 이상과의 긴밀하고도 정규적인 접촉 유지, 주제분야 이용자와의 우호적 관계유지 및 증진, 교육과 연구의 필수지원기구로서 도서관을 부각시키는 일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차원의 일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단계에서는 주제자료실 담당사서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둘 일이 아닐 것이다. 도서관장과 참고봉사 부서 책임자를 비롯한 도서관의 중견사서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2. 문헌정보학 교육의 측면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의 측면에서 이상과 같은 개념의 '주제사서'를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그 동안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구자영의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³⁷⁾과 윤영대의 "도서관학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 주제전문사서 양성방안을 중심으로"³⁸⁾를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김달식이 그의 학위논문, "한국의 교육제도에 따른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관한 연구"³⁹⁾에

37) 구자영,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 *도서관학*, 6집(1979), pp. 37-51.

38) 윤영대, "도서관학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 주제전문사서 양성방안을 중심으로", *도서관학*, 9집(1982), pp. 37-52.

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최근의 학부제 도입을 통한 주제전문사서 양성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동일 학부에서 복수 또는 다전공을 했을 때 문헌정보학 전공이 속한 학부내의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타 학부에서 복수 전공을 했을 때 광범위한 주제영역에 걸친 주제전문사서와 타학부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타 학부 전공자가 문헌정보학을 복수전공했을 때 둘째의 방안과 같이 여러 분야의 주제전문사서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⁴⁰⁾

그러나 이러한 그의 결론도 여전히 종래의 주제전문사서 논의와 마찬가지로 형식논리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즉, 제안 그 자체로는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되지 못한다고 본다. 보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의 현단계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현단계 문헌정보학 교육에서의 '주제사서' 양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1) 주제서지 과목의 강화

현재 전국 문헌정보학과의 교수과목 중에서 주제별 서지에 해당하는 과목명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제별 서지 I·II' '인문사회과학서지, 자연과학서지' 등의 이름으로 학문을 2대구분하여 운영하거나 '인문과학서지, 사회과학서지, 자연과학서지' 등의 명칭으로 3대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문구분을 인문과학서지, 사회과학서지, 자연과학서지, 응용과학서지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겠으나 우선 이러한 주제서지 과목을 보다 심도깊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학문분야의 변천사 이해를 통한 개관, 입문서와 기본서의 주제분석을 통한 주요 용어 및 개념 정리, 각 학문분야별 출판정보의 파악, 주제분야별 이용자연구 등을 시도하고 나아가 이상의 작업을 토대로 하여 주

39) 김달식, "한국의 교육제도에 따른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6. 12).

40) 위의 글, p. 65.

제별 서지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강도높은 훈련을 시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한 학기로는 충실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개별학문을 인문·사회·자연 과학이라는 큰 범주로 묶어 다루기에 개별 학문에 대한 내실있는 주제지식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제사서란 주제의 내용(content)을 다루는 '주제전문가'가 아니라 주제와 주제를 이어주는 서지(bibliography)를 다루는 '서지전문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주제별 서지' 과목은 보다 현실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주제사서 양성의 전과정에서 주제별 서지 과목의 운영은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므로, 이 과목과 장서개발, 자료조직, 참고봉사 등의 관련과목들을 연계하여 패키지(package)로 운영함으로써 주제분야별 서지지식의 함양과 개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장서개발, 자료조직, 참고봉사 등의 담당 교수와 주제별 서지 담당교수가 서로 협의하여 이들 과목마다 주제분야별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한 수강생이 자연과학에 관심이 있을 경우 자연과학분야의 장서를 개발하고 자료를 조직하며 나아가 참고봉사를 하는 지식을 이들 과목을 통해 연마할 수 있고 자연과학서지 과목을 통하여 보강을 받거나 최종 확인을 받는 식으로 이들 과목을 연계운영하는 것이다. 물론 역의 경우도 가능하다. 즉, 주제별 서지 과목을 저학년에서 개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분야별 기초개념과 서지를 먼저 익히게 한 뒤 장서개발, 자료조직, 참고봉사 등의 과목에서 주제지식을 심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학, 법학 등 고도로 전문화된 주제분야의 사서를 양성하기 위하여 의학서지, 법학서지 등의 과목을 특별히 개설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의학과 법학은 다른 주제분야에 비하여 뚜렷하게 구별되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학문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경우도 분관의 형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의학도서관과 법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의 경우, 특별히 의학사서, 법학사서로 양성된 사람이 일을 맡게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서 중에서 순환보

직에 따라 배치되는 것일 뿐이다.

의학사서의 경우,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의학서지’, ‘의학도서관’, ‘의학용어학’ 과목들을 운영하여 어느 정도 그 양성의 토대를 마련해온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에서는 이렇다할 전문교육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학서지’를 각 문헌정보학과에서 자연과학서지에 포함하여 다루거나 별도로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특정 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의학사서 양성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 한편 현재까지 의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의학용어학(Medical Terminology) 강습회를 실시해오고 있는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와 같은 전문단체가 의학사서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시험을 주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임상의학사서제도(Clinical Medical Librarianship)를 시행해오고 있다.⁴¹⁾

앞으로는 의학사서, 법학사서 외에도 음향자료실을 담당하는 음악사서, 미술관 자료실을 담당하는 미술사서, 멀티미디어자료실을 담당하는 교육매체 사서, 고전 자료를 담당하는 서지학 사서 등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전문적인 주제 봉사를 해야할 분야는 우리 눈앞에 산적해 있다.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주제서지’ 과목을 보다 강화하고 현장지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요망된다.

41) 미국의 경우는 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학사서제도가 독립되어 있으며 의학사서 중에서도 임상의학정보를 전문으로 봉사하는 사서를 ‘임상의학사서’라 한다. 이를 간단히 정의하면, “회진하는 의사와 의학도를 수행하고 도서관에 돌아와 해당질병들에 대한 적합문헌들을 검색하여 제공하는 의학문헌전문가”이다. 회진 뿐 아니라 임상사들과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에도 참석하여 현장에서 정보요구를 수합하여 도서관에 돌아와 해당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며 LATCH(Literature ATtached CHart)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효과적인 봉사를 실시한다. LATCH 프로그램은 의무기록카드 양식에 LATCH 신청서 양식을 미리 첨부하여 두고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면서 의문나는 주제나 그 질병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보내고, 도서관에서는 이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여 서지목록과 때로는 중요한 논문원문을 복사하여 그 환자의 의무기록카드에 부착시켜 주어 동료의사들이 그 환자진료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제도이다. 윤영대, “21세기를 대비한 의학도서관의 과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제30회 정기총회 및 기념세미나 자료집**, 경주교육문화회관, 1997. 5. 2, p. 58.

2) 부전공·학부제의 활용

이 안은 이미 선행하는 여러 논자들이 제시한 방안이다. 학생들에게 부전공, 학부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주제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 이러한 시도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제 논의이전에도 부전공·복수전공을 시도하는 학생이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학부제 추진단계에 들어와서도 학부제 자체가 학생층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특정주제분야를 담당하는 주제사서가 되기 위해 다른 분야 학문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주제사서를 특칭하여 모집하는 도서관도 없었을 뿐더러 문헌정보학과에서도 주제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특별히 운용해온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문이 더욱 전문분화되는 동시에 다른 학문과 교차하면서 소통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미로에서 헤매일 때 서지전문가인 사서가 교통안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제사서 양성의 목적과 취지가 우선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대학의 전체 교수진 사이에 충분히 인지되어야 한다. 문헌정보학과 교수진은 이를 위해 홍보하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배출되는 인력의 사서자격증에 주제전공분야를 표시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학부를 졸업하는 인력의 사서자격증에는 부전공(또는 학부제를 통한 복수전공 및 수개 전공) 분야를 표시하게 하고, 대학원과정에서도 타분야 주제서지를 심도깊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화된 교과목을 운영하고 이를 학위에 표시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특히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원생의 경우, 타 학문분야 서지·장서연구를 논문주제로 택하여 연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 적지않게 학위논문이 나오고 있다. 특정 주제분야의 서지를 연구하는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원생을 위하여 문헌정보학과와 대상 학과가 협의하여 제도적 보완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것은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원생 본인은 물론 두 학과 모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주제분야의 교수진 및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원생이 서지적 지식과 정보기술을 동원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 배려하는 것이다. 타 분야 연구자와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원생의 지속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타 분야 연구자는 보다 질높은 논문을 생산할 수 있고 문헌정보학 전공 대학원생은 이용자연구를 깊이있게 수행하고 주제지식을 실질적으로 함양하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⁴²⁾

IV. 나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주제사서(Subject Librarian)'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주제사서란 종래의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라는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소개된 주제전문사서 개념은 서구 문헌정보학 연구와 대학도서관 현장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도서관학 석사를 포함한 석사학위 2개를 가진 사서인력을 의미해왔다. 그러나 1966년에 시작된 안영주의 논의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이러한 '주제전문사서 담론'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실에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42) 여기서 타분야 서지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타분야의 학문흐름을 조망하고 일정한 방향성까지 제시한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그것은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교수진과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수행한 것으로 프로젝트명은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이다. 이 서지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해방이후 최근까지 이루어져온 학문의 주제성·적실성 확보를 위한 논의들을 담은 자료(단행본, 논문)를 서지적으로 조사하고 나아가 발굴한 글들을 초록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서지연구는 서지·초록 담당자로서의 사서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한 사례이다. 이러한 주제분야별 서지·색인·초록 작업을 통하여 사서는 각 학문분야 연구자들의 연구·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작업의 결과는 다음의 논문들에 잘 정리되어 있다. 김정근·박인웅,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I), 1945-1995", **한국민족문화**(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0집(1997. 2), pp. 1-80; 김정근·박인웅,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II), 1945-1995", **한국민족문화**(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0집(1997. 2), pp. 81-167.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에 보다 적합한 논의를 개진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말하는 '주제사서'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의 기존인력과 새롭게 배출되는 2급 정사서 인력에 바탕을 둔 것이다. 또한 이 글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현장에서 흔히 거론하여온 '주제배경(Subject Background)'의 개념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즉, 사서가 주제배경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주제분야에 대한 '내용적' 지식을 말한다기 보다 '서지적' 지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어떤 학문분야의 자료를 담당하는 사서가 그 분야의 학자에 버금가는 전문지식을 갖춘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제사서는 담당 주제분야에서의 서지출판동향의 파악, 이용자연구, 장서평가 등을 통하여 자료와 이용자를 적절하게 이어주는 매개자인 것이다. 사서가 내용적 차원의 주제지식을 갖추기 위해 담당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지적 배경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를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에서 계속한다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주제봉사(Subject Service)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 희박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글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주제봉사 활성화를 위해 시안적 성격이나마 주제사서 개념을 모색한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제사서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대학도서관 조직의 측면이다.

① 조직구조를 주제화하여 사서들이 주제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인문·사회·자연·융용과학별로 주제별 자료실을 운영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다.

② 참고서비스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주제지향적 참고봉사, 주제별 서지의 작성, 주제사서의 선정활동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문헌정보학 교육의 측면이다.

① '주제별 서지' 과목을 강화한다. 인문·사회·순수·융용과학 서지와 같은 4대구분이 바람직하나, 무엇보다도 과목의 내실있는 운영이 요망된다. 즉, 이용자연구에서 주제서지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이 충실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② 부전공, 학부제 등 기존 대학교육 제도와 최근의 변화를 활용한다. 문헌정보학 교수진은 문헌정보학 전공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문헌정보학 외에 다른 학문을 손쉽게 전공하거나 연구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주재사서 양성의 취지를 대학 내에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태원·김수진, “우리는 UBC도서관을 이렇게 보았다 : 브리티쉬컬럼비아(UBC) 도서관 연수보고”. **도서관소식**(부산대학교도서관), 제4호(1993. 2). pp. 92-112.
- 구자영,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 **도서관학**, 제6집(1979). pp. 37-51.
- 권은경, “도서관의 본질과 미래 도서관상(像)”. **도서관학논집**, 제27집(1997. 겨울). pp. 423-456.
- 김달식, “한국의 교육제도에 따른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6. 12).
- 김성수, “사립대학교도서관의 직제현황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4집(1996. 여름). pp. 301-334.
-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울, 1995.
- ,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 1996.
- , **디지털도서관 :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서울, 민음사, 1997.
- ,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1998.
- 김정근·박인웅,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I), 1945-1995”. **한국민족문화**(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제10집(1997. 2). pp. 1-80.
- ,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II), 1945-1995”. **한국민족문화**(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제10집(1997. 2). pp. 81-167.

- 김정근·이용재,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와 문화기술적 방법”. **도서관학논집**, 제24집(1996. 여름). pp. 107-161.
- 김찬호, “대학, 지성, 시민적 공공성 : 교육과 사회에 대한 몇가지 단상”. **현대사상 : 1998 지식인리포트**(1998. 6). pp. 62-80.
- 노옥순, “정리사서의 역할변화와 업무재편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1995). pp. 63-83.
- , “온라인 정보기술 환경과 참고사서의 역할 재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2호(1998. 6). pp. 121-142.
- 박준식, **정보서비스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8.
-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증축프로그램 설계 : 주제도서관을 구상하며”. **학기논고집**, 제4집(1994. 2). pp. 59-86.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편,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부산,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1997.
- 부산대학교 주제도서관 연구팀, “부산대학교 주제도서관 구축을 위한 보고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1998. 2. 23.
- 스틀, 클리포드, 한경훈 역, **허풍떠는 인터넷**. 서울, 세종서적, 1996.
- 신주영·손정, “우리는 미국의 두 대학도서관을 이렇게 보았다”. **도서관소식**(부산대학교도서관), 제8호(1995. 12). pp. 83-110.
- 안영주,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참고봉사의 문제점”. **도서관**, 제21권(1966). pp. 5-8.
- 양수미, “자동화에 따른 대학도서관 조직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제29권, 제2호(1998. 6). pp. 37-53.
- 양재한, “미래도서관에서의 소장(ownership)과 접근(access)의 문제”. **도서관학논집**, 제25집(1996. 겨울). pp. 19-32.
- 우병현, **디지털은 자본이다 : 디지털자본시대의 정보민족주의**. 서울, 나남출판, 1996.
- 유익봉·이남경·이수현·김종성, “일본 도서관 연수를 마치고”. **도서관소식**(부산대학교도서관), 제7호(1994. 12). pp. 77-95.
- 윤영대, “도서관학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 : 주제전문사서 양성방안을 중심

- 으로". **도서관학**, 제9집(1982). pp. 37-52.
- , "21세기를 대비한 의학도서관의 과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제30회 정기총회 및 기념세미나 자료집**, 경주교육문화회관, 1997. 5. 2. pp. 55-60.
- 윤희윤, "도서관의 미래상에 대한 담론 및 쟁점의 분석과 형상화". **도서관학논집**, 제27집(1997. 겨울). pp. 61-95.
- 이수상·김수진, "우리는 뉴사우스웨일즈대학 도서관을 이렇게 보았다". **도서관소식**(부산대학교도서관), 제6호(1993. 11). pp. 67-92.
- 이용재, "부산대학교도서관 정치학장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4. 8).
- 이용훈, "정보봉사, 도서관의 새로운 활로". **도서관문화**, 제37권, 제3호(1996. 5-6). pp. 17-29.
- 이제환, "전환기 '한국'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도서관학논집**, 제28집(1998. 여름). pp. 313-353.
- 장세경·임승규·박신흥·조왕근·홍용표, "학술정보원을 기조로 한 대학도서관 조직구조 방안 연구 : 한양대학교 신축도서관을 모델로 하여". **인문논총**(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제27집(1997). pp. 373-502.
- 전순자·임영제,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제도에 관한 제언".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3집(1995). pp. 201-207.
- 젤펀드, M. A, 이병목 역, **대학도서관**. 서울, 구미무역, 1985.
- 최상기, "대학도서관의 경쟁력 강화방안".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6집(1998). pp. 5-14.
- 한상완,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론**. 서울, 구미무역, 1986.
- , **정보조사제공론**. 서울, 구미무역, 1995.
- Buckland, Michael. *Redesigning Library Services : A Manifesto*. Chicago, ALA, 1992.
- Coppin, Ann. "The Subject Specialist on the Academic Library Staff". *Libri*, Vol. 24(1974). pp. 122-128.
- Crawford, Walt and Gorman, Michael. *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ALA, 1996.

- Crossley, Charles A.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in an Academic Library : His Role and Place". *Aslib Proceedings*, Vol. 26(1974). pp.236-294.
- Fadiran, D. O. "Subject Specialization in Academic Libraries".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Vol. 14(1982). pp. 41-46.
- Freedman, Maurice J. "Collection Development". *도서관소식*(부산대학교도서관), 제6호(1993. 11). pp. 38-45.
- Holbrook, A. "The Subject Librarian and Social Scientists : Liaison in a University Setting". *Aslib Proceedings*, Vol. 36(1984). pp.269-275.
- Mellon, Constance A. *Naturalistic Inquiry for Library Science*. NY, Greenwood Press, 1990.
- Messick, Frederic M. "Subject Specialists in Smaller Academic Librari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21(1977). pp. 368-374.
- Michalak, Thomas J. "Library Services to the Graduate Community : The Role of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 37(1979). pp. 257-265.
- Spradley, James P. *The Ethnographic Interview*. Florida,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9.
- . *Participant Observation*. Florida,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80.
- Stieg, Margaret F. "Continuing Education and the Reference Librarian in the Academic and Research Library". *Library Journal*, Vol. 105(1980). pp. 2547-2551.
- Thompson, James. *An introduction to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London, Clive Bingley, 1987.
-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ibraries, *Annual Report 90-93*. Sydne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ibraries, 1994.
- Wilson, Louis Round and Tauber, Maurice F. *The University Library*. 2nd ed.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
- Woodhead, P. A. and Martin, J. V. "Subject Specialization in British University Libraries : A Survey". *Journal of Librarianship*, Vol 14(1982). pp. 93-108.

Introducing the 'Subject Librarian System' into the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in their Present Developmental Stage

Lee, Yong-Jae *

〈Abstract〉

There is no doubt that we are going into a 'knowledge-based' society, and it is increasingly important that librarians in the University Libraries should be well versed not only in 'Information Technology' but also in 'Subject Knowledge'. I have explored in this paper the way how a librarian can offer 'Subject Service' based on his own knowledge of a subject.

The concept of the 'Subject Specialist' was introduced in Korea in the 1960s. It then referred to librarians who held two masters' degrees, one of which was in library science.

The term 'Subject Librarian' used in this paper refers to a librarian who holds a second-level certification among librarians working at the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And I emphasize that the Subject Librarian in Korea is not an expert with master or doctor degree in a certain discipline but a guide with bibliographic knowledge in a subject field.

I visited several University Libraries at home and abroad for a case study, and conducted the 'participant observation' and the 'ethnographic interview'. Based on the results thereof, I suggest how to train and make use of the Subject Librarian as follows:

* Lecturer, Dept.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1) On the organization in the University Library

① The University Library should have a structure conducive to a subject service system. One method could be to establish 'subject-materials rooms' for humanities, social sciences, natural and applied sciences.

② Reference services should be actively promoted. Offering subject-oriented reference services, producing subject bibliographies and selecting materials by subject librarians should become a standard feature of University Libraries.

2) On the education in th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① Courses like 'subject-bibliographies' should be emphasized. They should include user-study and compilation of subject bibliographies.

② The current changes in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can be an opportunity for training Subject Librarians. It is important that the professor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ncourage their students to major in a second discipline in addi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